i-KIET 산업경제이슈

제213호 2026-13

발행일 2026년 4월 16일 | **발행인** 권남훈 | **편집인** 이두희 | **발행처** 산업연구원

고환율기 수입 구조의 산업별 비대칭성과 정책 대응 방향

김태훈 부연구위원 | **홍성욱** 선임연구위원 | **한정민** 전문연구원

- **원/달러 환율 1,500원대 진입과 '고환율-고유가' 복합 비용 충격의 구조화**
  - 2026년 3월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상회하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강화하며 신흥국 통화 전반의 약세를 촉발
  - 현 고환율 국면은 국제유가 상승을 동반하는 '고환율-고유가' 복합 구조로, 수입 원자재·에너지 비용을 동시에 끌어올리며 기업에 비용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
- **환율 충격에 대한 수입 구조의 반응은 산업별로 비대칭성 뚜렷**
  - '수입조정형' 산업인 가전, 자동차부품, 자동차 등은 환율 상승 시 수입 물량이 탄력적으로 감소. 이는 최종재 수입대체 효과와 조달처 다변화 여지가 높음을 의미하며, 국내 생산 기회 확대 가능성을 내포
  - '수입유지형' 산업인 반도체, 원유, 이차전지 소재 등은 환율 상승기에도 수입 규모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확대되는 비탄력적 구조로, 환율 충격이 조달 비용으로 직접 누적
- **산업별 환율 전이 메커니즘의 구조적 차이와 대응 딜레마**
  - 수입조정형 산업: 수입 물량 감소에는 ① 최종재 수입대체(국내 생산 기회 확대)와 ② 중간재 조달 차질(생산원가 부담)의 두 경로가 혼재하여, 환율 상승이 생산 기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경로가 지배적이냐에 따라 상이
  - 수입유지형 산업: 환율 상승분이 그대로 비용으로 누적되어 고환율 장기화 시 수익성 저하 → 설비투자 축소 → 경쟁력 약화의 악순환 우려. 전략산업의 경우 투자 연속성 훼손이 중장기 경쟁력 손상으로 직결
- **산업 구조적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응 필요**
  - 수입조정형 산업: 수입대체 효과를 국내 생산 확대와 연계하고, 핵심 수입 중간재에 대한 할당관세 운영으로 생산 원가 경감 등의 대응 전략이 필요
  - 수입유지형 산업: 환율변동보험 지원 현실화와 세제·정책금융 연계를 통해 투자 연속성 보호가 필요
  - 공통: 수입 물가·물량 실시간 모니터링 조기경보 체계 구축, 중소·중견 기업 환헤지 접근성 강화 등을 통하여 시장 안정화 및 기업 대응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

핵심 주제어: 환율 전가, 수입수요 탄력성, 비대칭적 무역 반응, 공급망 비용 충격, 수입대체 효과

1,500원대 환율 진입과 복합 비용 충격의 구조화

- **고환율·고유가 복합 국면 본격화**
  - 3월 4일 1,506.5원을 돌파한 데 이어, 3월 31일에는 1,530.1원(장중 최고 1,536.9원)까지 상승하며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
  - 직접적 배경으로는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작용하였으며, 이는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심리를 강화하여 신흥국 통화 전반의 약세를 초래
  - 여기에 주요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원화 약세 압력이 확대되었고, 국제유가 역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를 반영해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 현재의 고환율 국면은 '고환율-고유가'가 결합된 복합 구조라는 점에서 과거 단일 요인 중심의 환율 상승기와 질적으로 다른 상황
    -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국제유가 급락(배럴당 100달러 → 40달러)이 에너지 수입 비용을 대폭 완화하며 충격을 흡수하였으나, 현재는 고환율과 유가 급등이 동반되어 과거의 에너지 비용 완충 안전판이 부재한 상황
  - 수입 원자재와 에너지의 원화 환산 비용이 동시에 상승하는 '이중 비용 충격' 구조는 기업의 비용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 압력을 과거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가중
- **환율 충격의 이중 경로: 수입 비용 상승과 수출 경쟁력 개선의 병존**
  - 환율 상승은 수입 비용을 높이는 경로와 수출 가격 경쟁력을 개선하는 경로, 두 방향으로 동시에 작용
  - 수출 경쟁력 개선 효과는 제조업 기반의 수출 주도 경제에서 일정한 긍정적 역할을 하지만, 한국과 같이 수입 중간재 의존도가 높은 구조에서는 이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
  - 한국 경제는 수입 중간재를 가공·조립하여 최종재를 수출하는 구조로, GVC 참여율[1]이 53.5%에 달하며 수입 중간재의 43.4%가 수출에 체화
  - 수입 중간재 비용 상승이 수출 원가를 직접 끌어올리는 구조에서,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단가 경쟁력 제고 효과는 수입 비용 상승 압력에 의해 실질적으로 희석
  - 결과적으로 환율의 순수익 효과는 산업별 수입 구조, 즉 중간재 의존도와 대체 가능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이에 고환율 충격에 대한 산업별 맞춤형 진단이 필요

환율발(發) 공급 충격의 가격 전이와 산업별 수입 탄력성 진단[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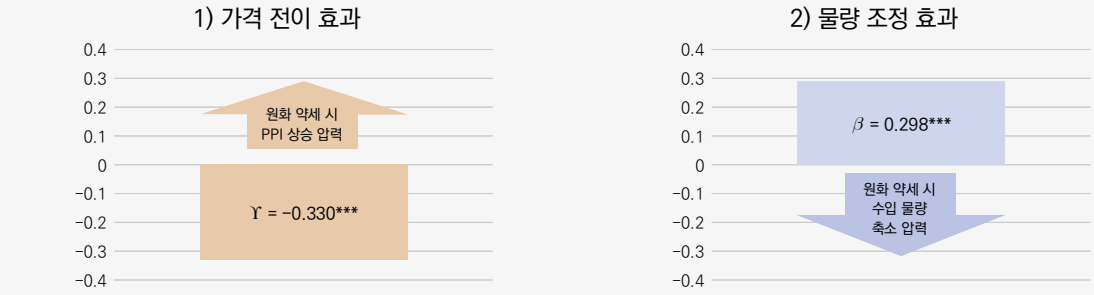
- **가격 전이 효과와 물량 조정 효과**
  - **(가격 전이 효과)**: 실질실효환율의 생산자가격 탄력성이 -0.330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실질실효환율이 1% 하락(원화 절하)할 때 생산자물가가 약 0.33% 상승함을 의미
    - 이러한 결과는 환율-물가 간 직접 연계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
    - 다만 환율 변동분이 생산자물가에 완전히 전가되지 않은 것은, 기업들이 이윤 마진 압축이나 장기공급계약 활용 등을 통해 비용 상승분 일부를 자체 흡수하고 있기 때문
  - **(물량 조정 효과)**: 수입물량지수 탄력성은 0.298로,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물량 감소 압력이 유의미하게 존재하나 실제로 수입 물량이 줄어드는 수준은 상당 부분 비탄력적인(Inelastic) 모습을 보임.
  - 이는 기업이 환율 충격을 가격(PPI) 전이 경로로 일부 흡수한 후, 수입 물량을 충분히 줄이지 못한 만큼 비용 부담이 누적되는 구조임을 시사하며, 결국 이러한 마진 압박이 기업의 감내 수준인 임계점에 근접할수록 향후 투자·고용 위축 등 실물경제로의 충격 전이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

---

1 OECD TiVA(2023).

2 본고의 환율 파급효과 분석은 가격 전이(Price Pass-through)와 물량 조정(Quantity Adjustment)의 두 단계로 구성.
가격 전이 효과 분석은 원화 가치 변동이 국내 생산자물가(PPI)에 미치는 파급 정도를 측정하였으며, 물량 조정 효과 분석은 환율 변동에 따른 수입물량지수의 탄력적 대응 정도를 분석. 분석 대상은 농림수산업, 에너지(원유, 석탄, 천연가스), 제조업 중분류(MTI 소분류 포함)이며, 2000년부터 2025년까지의 산업별 생산자물가지수, 수입물량지수, 실질실효환율, 국제유가, 세계 수출액 등 월별 데이터를 활용.
[해석상 유의점] 본 분석에서 활용된 산업별 수입물량지수는 해당 품목 전체의 수입 물량을 반영하므로, 최종재 수입과 중간재 수입이 혼재되어 있음. 예컨대 가전의 수입물량지수는 국내 가전 생산에 투입되는 부품·소재 등 수입 중간재뿐 아니라 중국산 완성 가전 등 최종재 수입도 포함. 이에 탄력성 계수는 '해당 품목 수입 전체에 대한 환율 반응'을 나타내는 구조적 지표로 해석하되, 이를 특정 산업의 생산 원가 변동에 직접 연결할 때는 주의가 필요.

〈그림1〉 환율 상승의 이중 경로: 가격 전이와 물량 조정



자료: 저자 작성.
주: γ와 β는 각각 실질실효환율의 생산자가격 탄력성과 수입물량지수 탄력성. ***는 1% 유의수준.

- **산업별 수입 탄력성의 양극화 구조**
  - 환율 충격에 대한 수입 대응은 산업별로 뚜렷한 비대칭성을 나타내며, 수입물량 탄력성 계수를 기준으로 '수입조정형'과 '수입유지형'의 두 가지 구조로 구분
  - 수입조정형 산업인 가전(1.750)[3], 자동차부품(1.296), 자동차(0.804) 등은 환율 변동에 맞춰 수입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이들 산업의 높은 탄력성은 수입 품목의 대체 가능성, 조달처 다변화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의미
    - 특히 가전·자동차의 경우 탄력성의 상당 부분은 최종재(완성품) 수입 감소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품의 가격 경쟁력 약화 → 국내 생산품의 상대적 경쟁력 회복이라는 수입대체 효과를 내포
  - 수입유지형 산업인 반도체(0.147), 원유(−0.283), 이차전지 소재(−0.437)는 환율 상승기에도 수입 규모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확대되는 비탄력적 구조
    - 특히 음(−)의 탄력성을 보이는 원유는 전량 수입 의존과 대체재 부재로 환율 상승에도 수입 물량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필수재이며, 이차전지 소재는 글로벌 전기차 수요 확대에 따른 배터리 생산 증가 추세가 환율 억제 효과를 압도하는 구조로, 이는 공정 연속성 유지, 글로벌 수요 연동, 구조적 대체재 부재 요인 등에 기인
    - 반도체 소재·장비는 글로벌 쌍방독점적 거래 구조로 대체 가능성이 극히 낮아, 환율 충격이 조달 비용 상승으로 고스란히 전이되는 구조

산업별 환율 충격 전이 메커니즘과 구조적 딜레마

- **수입조정형 산업: 수입대체 기회와 중간재 조달 부담의 병존**
  - 수입조정형 산업에서는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물량 감소는 성격이 다른 두 경로를 포함하고 있어, 이를 구분할 필요
    - 수입대체 경로: 최종재 수입 감소 → 수입품 대비 국내 생산품의 가격 경쟁력 회복 → 국내 생산 기회 확대
      * 이 경로에서 환율 상승은 오히려 국내 제조 기반을 강화하는 기회 요인으로 작용
    - 중간재 비용 부담 경로: 수입 부품·소재의 원화 환산 조달 비용 상승 → 생산 원가 압박 → 생산 규모 위축 가능성
      * 이 경로에서 환율 상승은 국내 생산 기반을 약화하는 위험 요인
    - 가전·자동차부품 등 수입조정형 산업에서 어느 경로가 지배적인가는 해당 산업의 수입 품목 구성에 따라 결정
- **수입유지형 산업: 비용 누적과 전략산업 투자 연속성 훼손 우려**
  - 수입유지형 산업은 환율 상승분이 그대로 조달 비용으로 누적되므로, 고환율 국면이 장기화될 경우 수익성 저하 → 설비투자 축소 → 생산성 저하 → 경쟁력 약화의 악순환이 형성될 우려
    -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가열되는 핵심 전략산업이라는 점에서, 고환율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투자 연속성 훼손으로 이어질 경우 중장기 산업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

3 괄호 안의 숫자는 분석에서 산출한 각 산업별 실질실효환율의 수입물량 탄력성 계수를 의미함.

〈그림2〉 환율 상승의 산업별 전이 메커니즘



자료: 저자 작성.

고환율 충격의 구조적 대응과 산업별 맞춤형 정책 방향

- 수입조정형 산업: 수입대체 기회 활용과 생산 기반 안정화 병행
  - **(수입대체 효과의 국내 생산 연계)**: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최종재 수요 감소량을 국내 제조기업 제품이 대체할 수 있도록 생산 역량 강화 지원 및 내수 판로 연계를 강화
  - **(핵심 중간재 원가 부담 경감)**: 필수 수입 중간재·부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탄력 운용하여 원가 부담을 낮추어 환율 상승에 따른 수출 경쟁력 개선 효과의 상쇄 방지
  - **(무역금융 지원 확대)**: 무역금융 한도 확대 및 저리 원자재 구매 자금 공급으로 공급망 유동성을 지원하여 생산 연속성을 확보
- 수입유지형 산업: 비용 충격 완충과 전략산업 투자 연속성 보호
  - **(환율변동보험 현실화)**: 비탄력적 수입 구조로 환율 충격이 비용 충격으로 직결되는 산업을 대상으로 환율변동보험의 지원 범위와 보장 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수익성 악화를 방어
  - **(전략산업 투자 연속성 보호)**: 고환율에 따른 이익률 저하가 차세대 설비투자 축소로 전이되지 않도록, 가속감가상각·R&D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인센티브와 산업은행·성장금융 투자 연계를 강화
  - **(공급망 다변화 촉진)**: 반도체·이차전지 소재의 국내 생산 투자 지원 및 공급선 다변화를 적극 지원하여 수입 의존도의 구조적 개선을 가속화할 필요
- 시장 안정화 및 기업 대응 인프라 확충
  - **(조기경보 체계 및 긴급 대응 체계 강화)**: 주요 산업별 수입 물가·물량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조기경보 체계를 정비하고, 변동성이 임계 수준을 상회할 경우 비축물자 방출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축
  -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위한 환위험 관리 역량 강화)**: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선물환·통화옵션 등 환헤지 상품 접근성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환위험 관리 컨설팅을 제공하여 공급망 전반의 복원력을 제고

저자

김태훈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 부연구위원 | taehoonkim@kiet.re.kr | 044-287-3627
홍성욱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 선임연구위원 | swhong@kiet.re.kr | 044-287-3192
한정민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 전문연구원 | jmhan@kiet.re.kr | 044-287-3291

KIET 산업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287-3114 | FAX 044-287-3333 | 홈페이지 www.kiet.re.kr

이 글은 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견해로서 산업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